

《大唐西域記》內 觀自在菩薩像 類型別 故事 考察

송윤미*

◁ 목 차 ▷

- I. 序論
 - II. 本論
 - 1. 神妙한 行績을 강조한 類型
 - 2. 斷食祈禱를 강조한 類型
 - 3. 彌勒菩薩과 관련된 類型
 - III. 結論
-

I. 序論

《大唐西域記》의 撰者는 辯機이지만 실질적 저자라고 할 수 있는 玄奘이 당시 중국의 불교계에서 존경받고 안정된 지위에 만족하지 않고 목숨을 담보로 한 인도 유학의 험난한 여정을 떠난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중국어로 번역된 불경의 뜻이 잘 이해되지 않은 데 있었다.¹⁾ 불교가 인도에서 발생하여 서역을 거쳐 중국으로 전파되기까지는 다양한 語族의 기록을 거쳐야만 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관세음보살의 산스크리트어 명칭은 「Avalokiteśvara(아발로키테슈바라)」인데 발음에 따라 「阿縛盧枳低濕伐羅」로 음사되기도 하고 그 뜻에 따라 「觀音菩薩」, 「觀世音菩薩」, 「光世音菩薩」, 「觀自在菩薩」 등으로 한역되었다. 이 같은 번역의 차이는 고유명사를 원어 그대로 옮기려는 사람과 그 뜻을 번역하려는 사람 사이의 관점이 달랐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중국에 불교가 전래되

* 강원대학교 중어중문학과 부교수

1) 현장은 특히 《攝大乘論》과 《十七地論》에 대한 중국어 번역이 학자들 간 많은 이견을 보임으로써 이러한 의혹을 풀기 위해 인도 유학을 결심하게 된다. (吳亨根 〈玄奘法師의 譯經與佛教的中興〉, 《玄奘研究文集》(鄭州, 中州古籍出版社, 1995), 29쪽.)

어 한역되던 시기에 한문을 모르는 외국의 승려와 산스크리트어 원문을 알지 못한 채 외국 승려의 설명에 의지하여 한문으로 옮겨 적어야 했던 중국인과의 사이에 경전이나 교리에 관한 상호 의미 전달이 분명하지 않았을 것이다.²⁾ 「Avalokiteśvara」라는 산스크리트어 명칭에 정확하게 대응되는 한역에 대한 논의는 현장으로부터 비롯되었다. 현장은 《大唐西域記》 권3 웃디아나국(烏仗那國, Uddiyana)³⁾에 소개한 관자재보살상에 대한 고사를 소개하면서

당나라에서는 觀自在라고 부르는데 글자를 합쳐 연달아 발음하면 위와 같은 산스크리트어가 된다. 글자를 나누어 각기 발음을 내어볼 때 阿縛盧枳多是 번역하면 觀이고, 伊濕伐羅는 번역하면 自在이다. 구역에서 光世音, 觀世音 또는 觀世自在라고 하는데 모두 잘못된 것이다. (唐言觀自在. 合字連聲, 梵語如上. 分文散音, 卽阿縛盧枳多, 譯曰觀, 伊濕伐羅, 譯曰自在. 舊譯爲光世音, 或觀世音, 或觀世自在, 皆訛謬也.)⁴⁾

라고 하며 관세음보살이란 중국어 번역은 잘못된 번역이고 관자재보살이 옳은 번역이라는 병주를 달았다.

현장은 「Avalokita」는 「觀」이요, 「isvara」는 「自在」를 뜻함이니 불전의 번역가들이 「isvara(자재)」 대신 「svara(音)」로 잘못 알았기 때문에 관자재보살 대신 관세음보살이라고 오역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산스크리트어에서 「a」와 「i」가 만나 「e」로 변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법화경》으로 대표되는 대승의 경전들과 그 주석서들이 관세음보살에 대해 모두 「세간의 음성을 듣고 도움을 주는 보살」이라고 한 것과 현장 이전의 불교 승려들이 모두 관세음보살의 성격과 개념을 잘못 알았고 또한

2) 강희정 《중국 관음보살상 연구》(서울, 일지사, 2005), 22쪽.

3) 본고는 章巽 校點 《大唐西域記》(上海, 上海人民出版社, 1977), 季羨林 校注 《大唐西域記校注》(北京, 中華書局, 2008), 권덕주 역 《大唐西域記》(서울, 우리출판사, 1994), 김규현 역 《大唐西域記》(서울, 글로벌컨텐츠, 2013), 이미령 외 역주 《大唐西域記》外 (서울, 동국대부설 동국역경원, 1998), 水谷眞成 譯註 《大唐西域記》(東京, 平凡社, 2000) 등을 참고로 하였다. 그리고 고사의 내용을 요약함에 있어서는 권덕주 역본과 김규현 역본을 위주로 참고하였는데 고유한 國名과 地名은 김규현의 번역을 따랐다. 권덕주는 원문에 충실한 정확한 번역이 돋보였고 김규현은 《大唐西域記》 등에 기록된 지역을 20여 년간 수차례 직접 답사하며 이를 바탕으로 國名과 地名을 번역하였기 때문이다.

4) 章巽 校注 《大唐西域記》(上海, 上海人民出版社, 1977), 63쪽.

그 개념에 따라 미술품으로 조성되어 예배의 대상이 된 관세음보살상도 그 본뜻과는 거리가 먼 것이 된 셈이다. 그러나 서역에서 전래된 경서에는 「svara」를 어미로 하는 「Avalokitasvara」로 표기되어 있으니 「自在」를 뜻하는 「isvara」가 원어가 아니고 처음부터 「音」을 뜻하는 「svara」로 되어 관세음보살로 한역하는 것이 옳게 된다.⁵⁾ 또한 서역에서 전래된 경서가 인도에서 전래된 경서보다 시기적으로 먼저이기 때문에 관세음이라는 보살 자체가 서역에서 먼저 신격화되고 서북 인도로 전파되었으리라는 가정이 설득력을 갖는다.⁶⁾ 그러므로 이렇게 서로 다른 견해는 인도와 서역에서 각각 전래된 경서에 표기된 관세음보살의 표기가 서로 달랐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인도에서 전래된 경서에 따른다면 관자재보살로 번역하는 것이 옳지만 서역에서 전래된 경서를 따르자면 관세음보살로 번역하는 것이 맞게 되는 것이다. 본고는 《大唐西域記》에 대한 고찰을 함에 있어 현장이 주장한 관자재보살이란 번역을 따르기로 한다.

현장이 인도 및 관자재보살과 깊은 인연이 있음을 시사하는 내용은 《大慈恩寺三藏法師傳》에도 그 기록이 남아 있다. 여기에는 현장의 모친이 현장을 낳을 때 그가 흰 옷을 입고 서쪽으로 법을 구하러 가는 것을 본 태몽과 정관 3년 인도로 출발하기 직전에 현장 자신이 꾸는 꿈이 기록되어 있다. 현장이 꾸는 꿈 내용을 개략적으로 요약하여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현장이 인도로 같이 갈 도반들을 여러 명 모았지만 唐 조정이 이를 윤택하지 않자 같이 갈 사람이 없게 되었다. 마음속에 걱정이 생긴 중에 꿈을 꾸게 되었다. 꿈속에서 그는 大海 가운데 있는 한 寶山을 보았다. 주위를 둘러보아도 그곳까지 타고 갈 것은 아무 것도 없었고 파도만 거칠게 일 뿐이었다. 용기를 내서 바다에 뛰어들자 갑자기 매우 많은 石蓮花가 피어올라 그 石蓮花들을 붙잡고 그 寶山의 기슭까지 갈 수 있었다. 寶山의 기슭에 올라 그 산을 바라보니 너무 높아 올라갈 수가 없었다. 그런데 몸을 한번 위로 솟구쳐 뛰어 봤더니 뜻밖에도 산 정상에 오를 수 있었다. 그 寶山에 오른 것은 금은보화를 위한 것이 아니고 그곳에 서서 멀리 바라보기 위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멀리 바라보며 매우 美妙하다고 느껴지는 순간 잠에서 깨었다.」⁷⁾는 것이다. 연꽃은 불교에서 많

5) 강희정, 앞의 책, 26-27쪽.

6) 위의 책, 31쪽.

7) 慧立 趙曉鶯 譯 《大慈恩寺三藏法師傳》(北京, 華文出版社, 2011), 25쪽.

은 佛菩薩과 연관이 된 꽃이다. 佛畫나 彫刻像에서 대부분의 경우 불보살은 연꽃을 坐處로 하고 그곳에서 化生한 것으로 표현되어 있다. 현장의 꿈속에 등장한 石蓮花는 관자재보살의 상징으로 봐도 무방할 듯하다. 왜냐하면 현장은 인도로 가는 도중 수많은 역경에 부딪히게 되는데 그때마다 관자재보살과 《반야심경》을 염송해서 불가사의할 정도로 그 고난을 물리치므로 꿈속에서 이에 대해 미리 암시한 셈이다.

필자는 《大唐西域記》를 천착하는 일련의 연구⁸⁾ 과정을 계속 진행해오고 있는데 이 과정을 통해 《大唐西域記》는 佛教遺物인 彫刻像에 얽힌 매우 많은 수의 고사를 기록하고 있는 점이 다른 入竺巡禮記에 비해 더욱 특징적으로 나타났다.

본고에서는 상술한 연구의 일환으로 현장에 의해 채록되어 《大唐西域記》에 기재된 고사 중 관자재보살상 고사를 선별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내용을 분석하기 위해 유형별로 나누고 이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II. 本論

《大唐西域記》에는 관자재보살 조각상에 대한 고사가 모두 13조 수록되어 있다.⁹⁾ 권1의 카피샤국(Kapisa, 迦畢試國), 권3의 웃디아나국(烏仗那國, Uddiyana)·카슈미르국(Kashmir, 迦濕彌羅國), 권5의 칸나우지국(Kanauji, 羯若鞠闍國), 권8과 권9의 마가다국(Magādhā, 摩揭陀國), 권10의 폰나바르다나국(Punnavardhana, 奔那伐彈那國)·단야카다카국(Dhnyakadaka, 馱那羯磔迦國), 권11의 마하랄트라국(Maharashtra, 摩訶刺佉國) 등에 기록된 고사가 이에 속한다. 이들 고사의 내용을 모티프에 따라 유형별로 나누어보면 神妙한 行蹟을 강조한 유형·

8) 송윤미 〈동서 문화 교류에 의해 탄생된 인도 불상 고사 고찰 - 《大唐西域記》을 통해서〉: 《동서비교문학저널》 30, 2014), 99-121쪽. / 송윤미 〈《大唐西域記》 영험 고사 고찰 - 조각상을 중심으로〉: 한국동서비교문학회 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4, 216-219쪽. / 송윤미 〈《大唐西域記》의 스뚜빠 고사 고찰〉: 《동서비교문학저널》 29, 2013), 126-168쪽. / 송윤미 〈《大唐西域記》에 묘사된 윤회와 업 사상 - 자따까(본생담)를 중심으로(Ⅰ)〉: 《동서비교문학저널》 27, 2012), 133-154쪽.

9) 송윤미 〈《大唐西域記》의 영험 고사 고찰 - 조각상을 중심으로〉, 위의 논문, 217쪽.

斷食祈禱를 강조한 유형·彌勒菩薩과 관련된 유형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모티프는 일정한 상황들에 단단히 고정되어 있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고사 간 치환도 가능하다. 모티프들의 결합력은 서로 다른 고사 유형들의 결합과 합성을 가능하게 한다.¹⁰⁾ 그러므로 위와 같이 모티프에 의해 나뉜 세 유형의 고사 안에는 서로 중복되는 내용이 발생할 수 있으나 고사 안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모티프를 분류의 기준으로 삼았다. 이러한 분류의 기준에 의하면 神妙한 行蹟을 강조한 유형에는 7조의 고사, 斷食祈禱를 강조한 유형에는 4조의 고사, 彌勒菩薩과 관련된 유형에는 2조의 고사가 각각 속한다. 이하에서는 이 고사들에 대하여 각 유형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1. 神妙한 行蹟을 강조한 유형

神妙한 行蹟이란 《大唐西域記》에 「神妙事蹟」이라고 기재된 용어를 따른 것이다. 神에 대한 고사는 이해하기 어려운 신비스러움과 이해를 가능하게 하는 합리성이 混在한다. 종교적 차원에서 보면 신비(mystery)는 어떤 神性에 대한 비밀스러운 숭배라는 의미를 갖는다. 신비가 신비스러운 것은 어떤 이치를 품고 있으며 명시적으로 소통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그러므로 신비를 합리적으로 풀어내면 의미 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다. 이 때 합리성은 신비의 세계와 상호 소통할 수 있지만 합리적 체계를 갖는 것은 아니다.¹¹⁾

이 유형에 속하는 고사는 권1의 카피샤국, 권3의 웃디아나국, 권8과 권9의 마가다국, 권 11의 마하랄트라국 등에 소재한 7조의 관자재보살상 고사이다. 구전이나 기록의 형식과 전설적 내용은 지닌 고사는 그 고사를 만든 작가를 알지 못하므로 그 고사가 소재한 위치가 작가를 대신 하는 역할을 갖고 있다. 우선 고사가 소재한 나라의 위치에 대해 알아본 다음 내용을 살펴보려고 한다.

1) 고사 所在國의 위치

카피샤국은 북쪽이 설산과 접해 있고 나머지 삼면은 흑령과 경계를 이루고 있는

10) 카트린 피게 알더, 이문기 역 《민담》(서울, 유로, 2009), 99쪽.

11) 김용석 《서사철학》(서울, 휴머니스트, 2009), 84-85쪽.

나라¹²⁾로 도성의 유적은 현 아프가니스탄의 수도 카불에서 북쪽으로 약 60km 떨어진 곳에 위치¹³⁾하고 승려들은 대부분 대승불교를 배우고 익힌다.¹⁴⁾ 웃디아나국은 간다라 북부 지역으로 현 파키스탄에서는 스와트 코히스탄(Swat Kohistan) 지방으로 불리우고 있는데 지금도 간다라 시절과 마찬가지로 페샤와르를 중심으로 한 지역과 오직 마라칸드와 카라카르 고개로만 교통로가 연결될 뿐 다른 지방과는 거의 단절된 폐쇄적인 곳이다.¹⁵⁾ 마가다국은 중인도에 속했던 나라로서 현 비하르(Bihār)주의 가야(Gaya)현과 파트나(Patna)현을 중심으로 하는 갠지즈강 남쪽 지역에 해당한다. 불교의 開祖인 釋尊과 자이나교의 開祖인 바르다마나(Vardhamāna)가 모두 이 나라의 국왕이었던 빈비사라왕과 그의 아들인 아사세왕의 보호 아래 그들의 종교를 발전시켜 나갔다.¹⁶⁾ 그러므로 불교 유적도 상당히 많아 《大唐西域記》에서 마가다국에 대한 서술은 권8과 권9에 걸쳐 있으며 다른 나라에 비해 가장 많이 기록되어 있다. 마하랄트라국은 현 인도 중서부의 고다바라강 유역을 중심으로 하는 마하라쉬트라 주에 해당하는 곳으로 유명한 아잔타 석굴을 만든 왕조이다.¹⁷⁾

2) 고사의 내용

웃디아나국 소재 관자재보살상은 「사원 안에 위치하고 있는데 신묘한 행적이 드러나서 승려와 재가 신도들이 모두 끊임없이 공양을 올린다.」¹⁸⁾라고 기재되어 있다. 마하랄트라국에 소재한 관자재보살상은 「성 남쪽 근방의 낡은 사원 안에 石像의 형태로 안치되어 있고 사람들이 소원을 빌면 이루어지는 영험을 보이는 일이다.」¹⁹⁾라고 서술되어 있다.

12) 권덕주 역 앞의 책, 41쪽.

13) 김규현 역 앞의 책, 89쪽.

14) 章巽 校點 앞의 책, 24쪽. 현장은 각 나라 별로 불교의 상황을 기술함에 있어 믿는다는 뜻의「信」자 대신 배우고 익힌다는 뜻의「習學」이란 자로 표현하고 있다. 이는 당시에 대승과 소승이 혼재되어 각 나라에서 학습되고 있는 상황을 시사하고 있다.

15) 김규현 역 앞의 책, 146쪽.

16) 위의 책, 341쪽.

17) 위의 책, 503쪽.

18) 권덕주 역 앞의 책, 87쪽.

19) 위의 책, 322쪽.

카피샤국 소재 관자재보살상은 「큰 산마루에 위치하며 만약 사람들이 지성으로 보기를 원하면 관자재보살이 그 상 안에서 절묘한 色身을 드러내어 지나가는 사람을 위로한다.」²⁰⁾라고 묘사되어 있다. 여기서 절묘한 색신을 드러낸다고 함은 관자재보살이 그 조각상 안에서 나와 지성으로 보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그 모습을 보여 준다는 것이다. 이 고사는 그 지역 사람들이 관자재보살상 안에 관자재보살이 있다고 여기며 그 모습은 일반적인 모습이 아니라 절묘한 형태를 갖춘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다.

마가다국 소재 관자재보살상 고사 중에서 이 유형에 속하는 고사는 모두 4조이다. 각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제1조에 묘사된 관자재보살상은 「델라다카 사원 안에 입상의 형태로 위치하고 있는데 그 안에 사리가 한 말 들어있고 이상한 광명이 비추거나 불가사의한 조짐이 가끔씩 일어난다.」²¹⁾고 한다. 이상한 광명이나 불가사의한 조짐은 관자재보살의 신묘한 행적을 표현하고 이러한 신묘한 행적은 사리로 말미암은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

제2조에 묘사된 관자재보살상은 「석존의 성도지인 보드가야의 보리수를 둘러싼 담장의 한 가운데 있는 금강좌 곁에 위치한다. 금강좌는 인도의 전설에 의하면 옛날 賢劫 초에 생긴 것으로 대지와 함께 나왔다. 삼천대천세계 안에 자리 잡아 아래로는 金輪에 이르고 위는 지면에 나타났다. 금강으로 만들어졌고 주위는 1백여 보가 된다. 현겁 중의 천불이 여기에 앉아 금강정에 들었기 때문에 금강좌라 하고 깨달음을 얻은 곳이기 때문에 보리도량이라고 한다. 대지가 진동해도 이곳만은 진동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런 까닭으로 여래가 깨달음을 얻기 위하여 이곳으로 오는 도중 근처를 지나자 대지가 진동하였지만 이곳에 이르자 대지는 진동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 정법이 차츰 쇠퇴해지면서 모래나 흙이 이곳을 덮어 금강좌를 사람들이 볼 수 없게 되었다. 석존이 열반에 든 다음 제국의 왕들이 석존이 금강좌의 크기에 대하여 설법한 것을 듣고 두 존의 관자재보살상으로 각각 남북 경계를 표시하면서 동향으로 안치하였다.」²²⁾라고 한다. 금강좌의 신묘함에 대한 인

20) 권덕주 역, 앞의 책, 43쪽.

21) 위의 책, 227쪽.

22) 위의 책, 235-236쪽.

도의 전설과 그에 따른 석존의 설법이 관자재보살상을 조성하게 된 이 고사의 모티프가 되고 있다.

제3조에 묘사된 관자재보살상은 「날란다사 서쪽 근방의 한 사원 근처에서 남쪽으로 위치한 작은 스뚜빠의 남쪽에 입상의 형태로 세워져있다. 간혹 이 관자재보살 입상이 향로를 들고 사원으로 간 다음 오른쪽으로 돌면서 경배하는 것을 볼 수 있다.」²³⁾고 한다.

제4조에 묘사된 관자재보살상은 제3조의 관자재보살상에서 「북쪽 방향으로 세워진 인근 정사 안에 안치되어 있다. 여러 나라의 僧俗들이 이곳에 와서 공양을 드리는데 맑은 신앙을 지닌 사람이 공양을 성대히 올리면 공양자의 참배 장소에 따라 관자재보살상이 서 있는 위치를 바꾼다.」²⁴⁾라고 한다. 제3조와 제4조에 묘사된 관자재보살 입상은 상술한 카피샤국 소재 관자재보살상 고사와는 또 다른 형태의 신묘한 행적을 보인다. 카피샤국 소재의 관자재보살상은 관자재보살상 안에서 관자재보살이 나와 그 모습을 드러낸다고 한 반면 제3조와 제4조의 관자재보살상은 관자재보살상 자체가 움직이는 행동을 한다고 묘사되어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현장은 실크로드의 본격적인 시발점인 돈황 교외의 서역행 양대 관문인 양관과 옥문관을 지나면서 우선 「카라부란」이 불어대는 사하라는 모래강을 건너야만 했다. 「카라부란」이란 검은 바람이란 뜻으로 사막에서 불어대는 모래 바람을 말한다. 한번 불기 시작하면 하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고 사하란 현지어로 「쿰다리아」인데 「쿰」은 모래, 「다리아」는 강물을 의미한다. 모래가 강물처럼 흐르는 모래의 강이란 뜻으로 정해진 지형이 없이 바람에 따라 지형이 움직인다.²⁵⁾ 인도로 가는 도중 현장은 絶命할뻔한 순간들과 여러 차례 조우하고 그 때마다 관자재보살과 《반야심경》을 염송하여 고난에서 벗어났다고 한다.

《반야심경》은 줄여서 《심경》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오늘날 통행본은 《마하반야바라밀다심경》이라고 불린다. 원래 범본에는 이 경의 제목이 없고 다만 경의 끝부분에 「반야바라밀다의 심요를 마친다(prajñā pāramitā-hṛdayam samāptam)」라고 되어 있는 것을 현장이 번역하면서 이 경의 서두에 있는 「반야바라밀다심경」이란

23) 위의 책, 274쪽.

24) 위의 책, 274쪽.

25) 김규현 역, 앞의 책, 6쪽.

어구를 가져온 것이다. 그리고 현장 역 《반야심경》에는 「마하」자가 없었는데 他本에서 「마하」를 인용하여 오늘날 통행본이 된 것이다.²⁶⁾

현장이 《반야심경》을 얻게 된 동기에 대해 《大慈恩寺三藏法師傳》에서는

현장이 성도에 머무를 때 의복이 남루하고 부스럼에 고름이 가득 차서 온몸에 악취를 풍기는 병자를 만났는데 아무도 돌보려는 이가 없었다. 현장이 측은한 마음이 들어 절에 데리고 와 의복과 음식을 주었다. 병자는 현장이 돌보아 준 은혜에 감사하며 《반야심경》을 주었다. 경문은 짧지만 그 뜻은 심오하여 현장은 늘 암송하였다. 사막에서 악귀 등과 같은 괴이한 현상과 맞닿았을 때 소리 높여 관자재보살을 염송하면 그러한 형상이 염송 소리에 따라 없어지곤 하였다. 그래도 어떤 때는 없어지지 않고 주변을 에워싸고 있었는데 이때 《반야심경》을 염송하면 염송하자마자 종적을 감추었다. (当初奘師在成都的時候，遇到一个衣衫襤褸，長滿膿瘡，全身臭穢的病人，沒有人願意理他，奘師見了心生悲愍，就把他帶到寺里，施与衣服并招待飲食。病者感奘師救濟之恩，于是授予《般若心經》。因爲經文簡短而意義深刻，所以時常誦習。在沙漠里，身邊遇到那些惡鬼等怪异現象，有時高聲称念觀自在菩薩圣号，影像就應聲消失，有時還是无法排除，环绕在左右。這時只要念誦《般若心經》，一發出聲，這些怪异現象就銷聲匿迹。)²⁷⁾

고 기록되어 있다.

현장이 成都에 머물렀을 때는 이미 많은 불경을 배우고 익혔을 무렵이다. 그러나 위의 기록으로부터 본다면 현장은 그때까지 《반야심경》을 접하지 못 했던 것으로 드러난다. 오늘날 한국을 비롯한 대승불교 국가들의 불교 의식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경전이 《반야심경》이다. 《반야심경》의 서두는 「觀自在菩薩，行深般若波羅蜜多時，照見五蘊皆空，度一切苦厄。」이라는 경구로 시작된다. 《반야심경》은 七種의 한 역본 중 구마라집의 역본과 현장의 역본이 가장 유명한데 오늘날의 불교도들은 대부분 현장의 《반야심경》 역본을 사용하여 독경하고 있다.

구마라집의 《반야심경》 역본에는 관자재보살 대신 관세음보살로 표기되어 있다.²⁸⁾ 관세음보살이라는 명칭이 보편적으로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강승재가 번역한 《무량수경》(A.D.252년) 및 구마라집이 번역한 《묘법연화경》(A.D.406년)과 60

26) 광덕 《반야심경강의》(서울, 불광출판부, 2002), 41쪽.

27) 慧立 趙曉鶯 譯 앞의 책, 38쪽.

28) 광덕 앞의 책, 48쪽.

권본 《화엄경》(A.D.418-421년)에서 비롯되었다. 이 경전들은 관세음보살의 성격을 규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경전들이다.²⁹⁾ 특히 《묘법연화경》은 약칭하여 《법화경》이라고도 하는데 이 경전의 제25章인 〈관세음보살보문품〉만을 별도로 발취하여 《관음경》이라 부른다. 《관음경》은 무진의보살이 관세음보살에 대해 묻고 이에 대해 석존이 답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관음경에서는 단지 관세음보살을 염하는 것만으로도 기도자의 소원이 성취되며 온갖 재해와 고난을 피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³⁰⁾

소승불교에 비해 대승불교에서는 諸佛, 諸菩薩 사상이 대두되어 예배의 대상이 됨에 따라 민간신앙적인 지방의 神이 불교에 수용되었다. 관자재보살도 그 중의 하나로서 처음부터 현세이익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³¹⁾ 원시불교 철학과는 상당한 괴리감이 있다. 《大唐西域記》에 기재된 위의 고사들은 당시 그 지역의 전설 및 민간 신앙과 연관되어 서술되었다. 당시 인도의 금강좌 전설에 의해 관자재보살상이 조성되었으며 관자재보살상 안에 관자재보살이 깃들어있다고 생각한 당시인의 신앙이 반영되어 있다. 맑은 신앙심과 성대한 공양³²⁾에 의해 관자재보살상이 움직인다는 묘사는 문학적 수사성이 농후하며 관자재보살상이 소재한 해당 사원의 홍보와 불교의 포교를 위한 의도로도 추측해볼 수 있다.

2. 斷食祈禱를 강조한 유형

단식기도를 강조한 유형은 신묘한 행적에도 속할 수 있는 유형이나 신묘한 행적을 체험하기 위해 단식기도라는 모티프가 강조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권3 카슈미르국, 권5 칸나우지국, 권9 마가다국, 권10 폰나바르다나국 등에 소재한 4조의 관자재보살상 고사가 이에 속한다.

29) 강희정, 앞의 책, 24쪽.

30) 강승재가 번역한 《무량수경》 및 구마라집이 번역한 《묘법연화경》과 60권본 《화엄경》은 모두 관자재보살 대신 관세음보살이란 명칭을 쓰고 있으므로 이들 경전의 내용을 언급할 때는 관세음보살로 호칭하기로 한다.

31) 나라 야스아키 정호영 역, 《인도불교》(서울, 민족사, 1994), 272쪽.

32) 인도인들은 소나 그 밖의 값진 물건으로 공양을 장만하는 공양주에게는 번영과 성공이 보장된다고 하는 믿음이 브라만 문화에 내재한다. (니니안 스마트 윤원철 역, 《세계의 종교》(서울, 예경출판사, 2004), 75쪽.)

1) 고사 소재국의 위치

고사가 소재한 카슈미르국은 현 인도 서북부 산악지대인 카시미르 주에 해당된다. 카슈미르국은 불교사에서 매우 중요한 곳이다. 이 나라에서 쿠산 왕조의 제3대 왕 카나슈카(Kanishka)의 후원과 파르샤바(Parsava)의 주도하에 불교의 제4차 결집을 거행하여 아직도 그 유적이 남아있다. 오늘날 카시미르 지방은 험준한 지세 뿐만 아니라 힌두교와 주민이 대다수 믿고 있는 이슬람교 간의 갈등 및 중국·파키스탄과의 국경 분쟁까지 겹쳐 인도에서 제일 접근하기 어려운 곳 중 하나이다.³³⁾ 칸나우지국은 현 인도 북부의 우타프라데쉬(U.P.)주의 칸나우지(Kanauji 혹은 Kanauj)이며 갠지스강 지류인 칼리(Kali)강의 동쪽 기슭에 위치하고 있다. 葛那及 등으로 음사되며 曲女, 妙童女 등으로 의역되어 한역 경전에 자주 등장하는 곳이다.³⁴⁾ 폰나바르다나국은 현 방글라데시의 보그라(Bogra) 인근으로 比定된다.³⁵⁾

2) 고사의 내용

카슈미르국에 소재한 관자재보살상은 「옛 도시 근처의 작은 사원 안에 있는데 상의 형태는 입상으로 모셔져 있다. 만약 관자재보살을 보려는 사람이 있으면 죽을 정도로 단식을 하면 상 안에서 묘한 색신을 나타낸다.」³⁶⁾고 묘사되어 있다.

칸나우지국에 소재한 관자재보살상은 「갠지스강 기슭에 위치하고 있다. 이 나라의 국왕인 실라디타왕(계일왕)은 바이샤 계급 출신이다. 선왕인 형이 이웃 나라인 카르나수바르나국의 샤상카왕에게 초빙받아 살해당한 후 대신들에 의해 추대되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왕이 될 자질이 있는지 스스로 의심하여 갠지스강 기슭에 있는 관자재보살상에 나아가 단식을 하며 빌었다. 관자재보살은 왕의 정성에 감동하여 모습을 드러내어 의심을 품고 있던 왕에게 “그대는 전생에 숲속에서 수행하던 비구였는데 부지런히 수행한 복덕으로 이곳의 왕자로 태어난 것이다. 카르나수바르나국의 왕이 불법을 파괴했으니 그대는 왕위를 이어받아 다시 흥룡시켜야 한다. 자비한 마음을 갖고 哀憐을 생각한다면 머지않아 오인도의 왕이 될 것이다.”라고 말

33) 김규현 역 앞의 책, 170쪽.

34) 위의 책, 224쪽.

35) 위의 책, 447쪽.

36) 위의 책, 106쪽.

해주었다. 그는 이 교시를 받아 돌아가 왕위에 오른 후 군대를 훈련시켜 6년 동안 오인도를 복종시켰다. 오인도에 영을 내려 고기를 못 먹게 하고 만약 생명을 끊는 자가 있으면 주벌을 하였다. 그리고 갠지즈강 기슭에는 높이 1백여 척이 되는 스투빠를 수천 기 세웠으며 오인도의 성읍이나 촌락 등 사람의 왕래가 많은 네거리에는 靜慮를 세우고 음식이나 의약품을 갖추어 널리 빈한한 자들에게 공급하였다. 또한 불타의 성적이 있는 곳에는 모두 사원을 세우고 5년마다 무차대회를 열었으며 우기의 석 달 동안에는 行宮에 머물면서 異學의 사람들을 대접하였다. 그는 하루를 3부의 시간으로 나누어 1부의 시간에는 정무를 보고 나머지 2부의 시간에는 부지런히 복덕을 닦았다.³⁷⁾고 한다.

이 고사는 여타의 관자재보살상 고사가 짧은 편폭과 매우 간략한 묘사로 기록되어 있는 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긴 편폭과 스토리성을 지니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이 고사에 등장하는 계일왕을 현장은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눴다는 기록이 있다.³⁸⁾

마가다국에 소재한 관자재보살상은 「험준하고 울창한 산 속에 세워진 한 정사 안에 안치되어 있다. 이곳의 관자재보살상은 몸체는 작지만 숙연한 위엄을 드러내며 손에는 蓮花를 들고 머리에는 불상을 이고 있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곳에 와서 7일 내지 한 달간 머물면서 관세음보살을 뵈고자 단식하면서 서원한다. 만약 관자재보살이 감응하면 위광을 갖춘 훌륭한 모습의 관자재보살이 상 안에서 나와 그 사람을 가르치기도 한다. 옛날 싱갈라국왕이 거울에 자신의 얼굴을 비춰 보는데 자신의 얼굴은 보이지 않고 이 보살상이 거울에 나타나 이를 그림으로 그려 찾아다니는 도중 이 산에 들렀더니 그림과 똑같은 상이 있어 이곳에 정사를 세워 공양을 올렸다.³⁹⁾고 한다.

「현장이 방문했을 당시 동인도 경계의 유명하고 학식이 깊은 승도는 대개 푼나바르다나국에 머물고 있었다. 이 나라의 한 사원 안에 관자재보살상이 안치되어 있는데 근처에 아쇼카왕이 세운 스투빠와 과거4불의 좌소 및 산책터가 있다. 관자재보살상의 영험이 각별하여 원근의 사람들이 이곳에 와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를 올린

37) 위의 책, 139-141쪽.

38) 권덕주 역 앞의 책, 141-142쪽.

39) 위의 책, 279-280쪽.

다.」⁴⁰⁾고 묘사되어 있다.

단식은 禁食과 동의어로도 사용될 수 있으며 일정 기간 음식 섭취를 하지 않거나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오늘날에는 단식이 건강을 목적으로 많이 보편화되어 있지만 사회·정치적인 목적 특히 저항이나 단합의 표현으로 행해지기도 한다. 가장 뚜렷한 예는 20세기 전반에 살았던 마하트마 간디에게서 볼 수 있다. 원래 단식의 유래는 인류의 시원과 함께 했다고 볼 수 있다. 고대인의 종교와 문명에서 단식은 사람들 특히 성직자가 신격에 도달하기 위해 행하는 하나의 의식이었다. 헬레니즘 시대의 신비적 종교에서 신은 오직 현신적인 단식이 행해진 뒤에 현신자의 꿈이나 환상 속에 神託을 나타냈다. 많은 문화에서 단식은 신의 분노를 가라앉히거나 식물의 신처럼 죽었다고 믿어지는 신을 부활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 듯하다. 특별히 기간을 정하거나 특별한 목적을 위해 단식하는 것은 세계 주요종교의 특징이다. 자이나교에서는 미리 정해진 원칙에 따라 단식하고 일정한 형식의 명상을 하는 것이 한 개인을 세상과 분리시켜 초월적 상태에 이르게 하는 무아의 경지로 이끈다. 불교의 승려들은 특별한 날에 단식하고 그들의 죄를 작은 목소리로 고백한다. 힌두교의 성자들도 여러 가지 이유로 잦은 단식을 해 존경을 받는다. 서양 종교들 중에는 오직 조로아스터교만 단식을 금하고 다른 종교들인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는 특정 기간 동안의 단식을 강조한다. 유대교는 매년 단식일을 준수한다. 이 단식일은 주로 참회와 비탄의 날들이다. 그리스도교⁴¹⁾, 특히 로마 가톨릭과 동유럽의 그리스도교는 四旬節기간인 40일 금식기간과 봄철의 참회기간, 그리고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근신기간인 降臨節에 단식을 해왔다. 개신교회는 단식을 일반적으로 교회구성원의 양심에 맡긴다. 이슬람교에서는 라마단 달을 참회기간으로 지키면서 새벽부터 해질녘까지 완전히 단식한다.⁴²⁾ 도교에서는 단식이란 용어

40) 위의 책, 287-288쪽.

41) 한국의 그리스도교에서는 단식이란 용어 대신 금식이란 용어를 더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듯싶다. 왜냐하면 이 종교 신자들이 발행한 도서들이 대부분 단식 대신 금식이란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42) 네이버두산백과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79697&cid=40942&categoryId=32763>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79697&cid=40942&categoryId=32763>

다음 브리태니커백과사전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b04d2065a>

대신 辟穀이란 용어로 표현한다. 벽곡은 도교 수행법 중의 하나로 곡물을 먹으면 그 찌꺼기가 축적되어 몸을 무겁게 하므로⁴³⁾ 도교 신자들이 목표로 하는 長生不死와 羽化登仙에 도움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유형에 속하는 위 4조의 고사들은 모두 단식이 중요 모티프가 되어 단식을 함으로써 관자재보살을 직접 친견하거나 영험을 구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시 말하자면 관자재보살을 친견하거나 관자재보살로부터 영험을 보는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단식이라는 선행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관점을 나타내고 있다. 비록 종교가 다르다고 할지라도 동일한 인류라는 입장에서 볼 때 이 유형의 고사들이 단식을 강조한 이유를 상술한 동서고금의 여러 종교와 다양한 문화에서 찾을 수 있고 여기서 단식의 의미는 초월적 존재인 神과의 遭遇를 위한 수행과 참회라는 공통분모를 갖고 있다. 즉 단식을 강조한 유형의 고사들도 관자재보살이라는 초월적 존재와의 조우를 위해 배고픔을 참는 수행과 배고픔이라는 고통을 참회의 형식으로 취하고 있다.

3. 彌勒菩薩과 관련된 유형

미륵보살과 관련된 유형에는 권8 마가다국과 권10 단야카다카국에 각각 소재한 관자재보살상 고사가 속한다. 단야카다카국에 소재한 관자재보살상 고사는 신묘한 행적 및 단식기도를 강조한 모티프에도 속할 수 있지만 이들 모티프보다는 미륵보살과의 관련성이라는 모티프가 고사의 내용에서 더욱 뚜렷하게 두드러지므로 이 유형에 포함시켰다.

1) 고사 소재국의 위치

мага다국에 대해서는 상술하였으므로 단야카다카국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단야카다카국은 인도 남동부를 동서로 관통하는 크리슈나(Crishna)강 하구에 가까운

단식 또는 금식에 대한 참고자료를 구하기 위해 도서관 자료와 서점 판매용 문헌을 찾아 본 결과 오늘날에는 단식과 관련해서 건강과 그리스도교들에 의한 간증 자료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43) 酒井忠夫 외 최준식 역, 《도교란 무엇인가》(서울, 민족사, 1991), 262쪽.

연안에 위치했던 나라이다. 최근 고고학적 발굴에 의하면 크리슈나강 남안의 아마라바티에서 서쪽으로 1마일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 현 단야카타카(Dhanyakataka) 부근의 동산과 서산 사이에 옛 도읍지인 스타바하나스(Satavahanas)가 있었다고 한다.⁴⁴⁾ 「단야카다카(Dhnyakadaka)」의 의미는 산스크리트어로 「곡식의 마을」이란 뜻이다. 원래 이 나라는 토지가 비옥하여 농업이 성행했지만 현상이 방문했을 당시 황야가 많고 촌락은 적었으며 사원은 처마를 맞대고 있을 정도로 줄지어 있었으나 매우 황폐해져 있었다⁴⁵⁾고 한다.

2) 고사의 내용

마가다국에 소재한 관자재보살상은 「석존이 成道한 장소인 보리수의 동쪽에 위치한 사원에서 다시 동쪽 방향에 세워진 重閣에 위치하고 있다. 이 중각은 모두 세 겹으로 된 門이 있는데 그 중 바깥쪽 외문의 왼쪽 감실 안에 관자재보살상이 안치되어 있고 오른쪽 감실 안에 미륵보살상이 안치되어 있다. 이 두 상은 각각 白銀으로 주조되었으며 높이는 10여 척이다. 이 두 상이 안치된 중각의 차양은 세 겹으로 만들어졌고 서까래, 기둥, 들보, 대들보, 큰 문, 작은 문, 창, 영창 등은 금은의 조각으로 꾸며놓았으며 진주와 보옥을 박아놓았다.」⁴⁶⁾라고 하며 이 고사는 정성을 들인 호화로운 꾸밈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단야카다카국에 소재한 관자재보살상 고사는 마가다국 소재 관자재보살상이 미륵보살과 좌우 挾侍의 개념으로 안치되어 있다고 하는 짧은 설명에 그치고 있는 것에 비해 상당히 긴 편폭으로 서술이 되어 있다. 단야카다카국 소재 관자재보살상 고사는 미륵보살과 만남을 열망하는 단야카다카국 출신 淸辯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淸辯은 마가다국의 護法이 불교를 널리 포교하고 그에게 배우는 學徒가 수천 명이라는 소문을 듣게 되었다. 그는 호법을 만나면 證果를 얻으리라 생각하여 호법이 머물고 있는 파탈리성에 가서 使者를 시켜 여러 번 만남을 청하였으나 호법

44) 김규현 역 앞의 책, 473쪽.

45) 권덕주 역 앞의 책, 302쪽.

46) 위의 책, 237쪽.

이 수행에 바빠 그와 담론할 시간이 없다는 대답을 듣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야만 했다. 그는 미륵보살이 성불하지 않는 한 누구도 자신의 의문을 해결해줄 수 없다고 생각하여 관자재보살상 앞에서 곡기를 끊고 물만 마시면서 〈隨心다라니〉를 외우기 시작했다. 3년이 지나자 관자재보살이 無比의 色身을 나타내며 청변의 소망을 묻고는 미륵보살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훌륭한 선행을 닦아 미륵보살이 상주하는 투시타천에 태어나기를 서원하라고 말한다. 그러나 청변은 자신의 마음을 바꿀 수 없다고 대답하니 관자재보살은 다시 단야카다카국의 성 남쪽에 있는 執金剛神이 거주하는 산에 가서 지극한 마음으로 〈집금강다라니〉를 원다면 소원을 성취할 것이라고 말해준다. 그가 관자재보살의 말대로 하자 3년 만에 집금강신이 나타나서 그의 소원을 묻고는 석벽 안에 이수라궁이 있으니 들어가서 미륵보살이 세상에 나오기를 기다리라며 비법을 가르쳐준다. 청변이 열심히 비법을 외우며 3년이 지나서 겨자씨에 주문을 걸고 암벽을 쳤더니 홀연히 암벽이 열렸다. 그리고는 그를 따르는 6명과 함께 그 안으로 들어가니 열렸던 암벽이 저절로 닫혔다.⁴⁷⁾

미륵은 친구를 뜻하는 「mitra(미트라)」에서 파생한 산스크리트어 「Maitreya(마이트레야)」를 음역한 것으로 慈氏로 의역된다.⁴⁸⁾ 우리에게 미륵보살이라는 명칭이 익숙하지만 《大唐西域記》에는 미륵보살이란 호칭 대신 자씨보살로 표기되어 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의 慈란 위에서 말한 마이트레야를 번역한 말이고 마이트레야는 미트라에서 나온 것인데 친구라고 해도 어느 특정한 한 사람에게 우정을 품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최고의 우정을 품은 것이 慈가 된다. 悲는 산스크리트어 karuna(카루나)를 번역한 것이며 신음의 의미이다. 인생이 괴로워 신음하고 있는 사람에게 동감하며 함께 신음하는 동고의 배려가 悲이다.⁴⁹⁾ 보살은 산스크리트어 Bodhisattva(보디사뜨빠)의 音寫인 菩提薩埵의 준말이다.⁵⁰⁾ 覺有情 또는 道心衆生이라 번역된다. 진리를 구하고 중생을 이익 되게 하는 수행자를 의미한다. 道心으로 수행하는 자는 결국 道心の 究極을 완성하니 이것이 성불이 된다. 그러므로 보살은 미래불이며 동시에 道心の 表現이기도 한 양면성이 있다.⁵¹⁾ 미륵보살

47) 위의 책, 303-305쪽.

48) 다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19909

49) 히로 사치야, 이미영 역 《기적의 관음경》(서울, 대숲바람출판사, 2009), 204쪽.

50) 다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23380

은 부파불교의 《아함경》에도 등장한다. 인도에서 성립된 보살이지만 서아시아의 메시아 신앙, 조로아스터교의 미트라 신앙과 관련이 있다는 설도 있다. 쿠사나왕조 시대의 서북인도에서는 미륵불상이 빈번히 조성되었지만 남인도에서는 미륵불상의 유물이 없으므로 특히 서북인도의 대승불교도 사이에 널리 신봉된 것으로 간주된다. 400년경부터 미륵경전류가 작성되기 시작하였으며 중국 등지에도 전해졌다.⁵²⁾

미륵보살에 대한 설명은 남송 저거경성이 번역한 《불설관미륵보살상생도솔천경》, 돈황 출신의 축법호가 번역한 《불설미륵하생경》, 구자 출신의 구마라습이 번역한 《불설미륵하생성불경》 및 《불설미륵대성불경》 등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이를 종합해보면 미륵이 열반에 든 후 도솔천에 올라가 보살이 되어 56억7천만 년을 지낸 후 인간 세상에 다시 내려와 성불한 다음 미륵불이 된다고 한다. 난세를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미륵을 속히 만나 경전에서 말한 대로 살기 좋은 미륵불국토에서 걱정 없이 살아가기를 희망했다. 초기에는 지옥과 같은 현실에서 벗어나 미륵보살이 있는 도솔천으로 상생하기를 희망하는 내세적 성향이 강하여 《미륵상생경》을 주로 독송하고 이를 신앙했던 듯하며 미륵보살상을 조성하더라도 《미륵상생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상생미륵보살상을 주로 조성하였다. 이런 현상은 돈황석굴 제268굴 본존미륵불교각좌상이나 운강석굴 제17동 본존미륵보살교각좌상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륵굴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 돈황 제275굴의 연구 조사 결과에 의하면 미륵보살교각좌상은 상생미륵보살이고 반가좌상은 하생미륵보살의 개념이 강하다.⁵³⁾ 미륵교각좌상은 시대가 내려올수록 여성화되는데 사진1)⁵⁴⁾은 상생미륵보살이 여성화되어 운강석굴 최후기에 교각좌상으로 조성된 예이다. 사진2)⁵⁵⁾도 여성화된 하생미륵보살상으로 백제가 북제와 교역을 트고 미륵하생사상을 받아들이면서 이를 기반으로 독자적인 양식으로 발전시킨 국보78호 금동미륵보살반가상이다. 백제뿐만 아니라 한국의 신라, 고구려도 이 사상을 받아들였다.

51) 광덕 앞의 책, 49-50쪽.

52) 나라 야스아키, 정호영 역 앞의 책, 272쪽.

53) 최완수 《한국불상의 원류를 찾아서(2)- 미륵 하생과 아미타 출현》(서울, 대원사, 2007), 11-12쪽.

54) 490-496년 북위 조성. 운강석굴 제15A동 북벽 중층 동쪽 감실에서 반출, 프랑스 세르 누시미술관 소장.(최완수 위의 책, 13쪽.)

55) 570년경 백제 조성, 국립중앙박물관 소장.(최완수 위의 책, 29-31쪽.)



사진 1)



사진 2)

단야카다카국 소재 관자재보살상 고사는 6세기 중반 남인도 드라비다국(Dravida, 達羅毘荼國) 출신으로 唯識學의 10대 논사 중 一人⁵⁶⁾으로 불리어지는 護法(Dharmapāla)을 만나면 證果를 얻으리라고 생각한 清辯(Bhāvaviveka)에 대한 서술로 고사가 발단된다. 여러 차례 호법을 만나기를 시도하지만 거절당하고 본국으로 돌아온 후 호법 대신 미륵보살을 만나기를 염원하는 처절한 수행을 하는 청변에 대한 내용으로 고사는 전개된다. 그런데 역사적 사실은 위에서 상술한 고사의 내용과는 자못 다르다. 490-570년 경에 생존한 청변은 남인도 왕족 출신으로 중인도에서 대승의 경전들과 용수의 논의를 듣고서 다시 남인도로 돌아가 교법을 널리 펼쳤으며 용수의 중론에 대한 釋을 짓고 천명의 문인들을 두었다고 하며⁵⁷⁾ 용수와 제바의 중관학을 계승하며 《中觀心論頌》, 《大乘掌珍論》, 《般若燈論》 등 많은 저작을 남긴 뛰어난 불교 논리학자였다.⁵⁸⁾ 주지하는 바대로 현장은 주로 유가행파의 유식 철학에 관심을 두었는데, 그와 그의 제자 窺基는 중국의 유식학과

56) 다음 고려대장경전 불교용어사전 <http://kb.sutra.re.kr/ritk/service/diction/dicView.do?dicId=9786>

57) 이미령 외 역주 앞의 책, 323쪽.

58) 다음 고려대장경전 불교용어사전 <http://kb.sutra.re.kr/ritk/service/diction/dicView.do?dicId=8929>

인 法相宗을 형성시킨다. 그리고 護法이 찬술하고 현장이 편역한 《成唯識論》과 그 주석서로 규기가 저술한 《成唯識論述記》에는 그 교리가 체계적으로 서술되어 있다.⁵⁹⁾ 즉 인도의 유식 불교에는 무상유식과 유상유식이라는 두 갈래의 흐름이 있는데 유상무식은 호법으로 대표되고 호법의 제자가 계현이며 이 두 논사는 모두 인도 날란다사의 조실을 지냈으며 현장은 바로 계현의 제자가 된다. 이에 비해 청변은 안혜로 대표되는 무상유식파를 계승하고 남인도에서 거주하며 날란다사를 대표로 하는 중인도의 유상유식학과 논리적으로 대립하였다.⁶⁰⁾

이러한 역사적 사실에 비추어볼 때 단야카다카국 소재 관자재보살상 고사는 대승 불교(Mahayana) 중관학파의 뛰어난 논사인 청변이란 역사적 인물을 문학적으로 상당히 왜곡시켰다고 할 수 있다. 고사 내용 중에서 그러한 점을 찾아본다면 「이 교도인 상키야 학파의 복장을 함」, 「호법을 만나면 깨달음을 얻을 것으로 여김」, 「隨心다라니·執金剛다라니를 외움」 등이다. 즉 대승불교 학자인 청변이 이교도의 복장을 하고 대립된 학파에 속한 호법을 만나기만 하면 깨달음을 얻을 것으로 생각하나 호법에게 만남을 거절당하자 대신 미륵보살이 속히 성불하여 자신의 의문을 풀어주기를 바라며 〈수심다라니〉와 〈집금강다라니〉⁶¹⁾를 외우는 내용이 고사에서 전개된다. 또한 관자재보살은 청변 앞에 나타나 미륵보살이 상생하여 있는 곳인 투시타천(도리천)에 태어나도록 권유하나 청변은 거절하고 미륵보살이 하생하기를 바라며 이수라궁이라고 상정된 석벽을 겨자씨에 주문을 걸어 열게 한 다음 그를 따르는 여섯 명의 사람을 데리고 들어가자 석벽이 다시 닫혔다고 하는 고사의 내용은 청변을 밀교(Vajaryana)의 수행을 한 인물로 변형시킨 것이다. 그리고 이는 상술한 백제의 미륵하생사상 선호와도 부합한다.

59) 다음 브리태니커 사전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do?docid=b25h0964a>

60) 太田久紀, 정병조 역 《불교의 심층심리》(서울, 현음사, 1987), 42-47쪽.

61) 당시 민간에서 유행하던 〈수심다라니〉와 〈집금강다라니〉는 밀교의 주문이다.(薛克翹 〈西域記與西遊記〉; 《현장연구문집》(鄭州, 中州古籍出版社, 1995), 385쪽)

Ⅲ. 結論

상술하였듯이 강승재와 구마라집에 의해 번역된 《무량수경》, 《묘법연화경》, 60권본 《화엄경》 등이 이미 현장의 시대보다 이전인 3세기 중반과 5세기 초반에 한역되었고 특히 《관음경》이라고 불리우는 《묘법연화경》 내의 〈관세음보살보문품〉은 중국인들의 애호를 받아 관세음보살을 조각으로 표현한 관세음보살상은 그 양식적인 면에서 인도 색채의 관세음보살상에서 점차 중국화된 관세음보살상으로 표현되었으므로 현장은 인도로 가기 전 관세음보살이란 명칭과 대상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다만 현장이 인도로 유학가기 전에 우연히 얻게 되었던 《반야심경》본이 서역에서 전래된 것인지 아니면 인도에서 전래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만약 서역 전래본이라면 「Avalokitasvara(아발로키타스바라)」의 한역인 관세음보살이란 호칭이 사용되었을 것이고 인도 전래본이었다면 「Avalokiteśvara(아발로키테슈바라)」의 한역인 관자재보살이란 호칭이 사용되었을 것이다. 현장이 얻었던 《반야심경》이 인도본이었다면 현장은 인도로 유학 가는 도중 술하게 부딪혔던 그의 목숨을 담보로 한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 관자재보살을 염송했을 것이고 만약 서역본이었다면 관세음보살을 염송하며 인도로 갔다가 인도에서 인도본 《반야심경》을 접한 후 호칭을 관자재보살로 바꿔서 염송하며 중국으로 귀국하였을 것이다. 어떠한 경우든 현장은 귀국 후 《大唐西域記》를 통해 관세음보살이란 용어는 오역이고 관자재보살이 정역이라고 주장하였다.

불교가 2500여 년 전 인도에서 발생한 이후 인도문화권을 넘어서 세계의 다른 문화권으로 전파되면서 다양하게 변용되었으며 불교의 근본정신과 가치관도 그 지역과 시대에 맞게 변용되면서 발전해갔다. 불교예술 즉 불교문학, 불교미술, 불교건축 등은 그러한 변용 중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⁶²⁾ 관자재보살은 원시불교에는 본래 없던 존재였으나 대승 불교 흥기 이후 존재하게 된다. 대승불교의 핵심 사상은 보살정신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여러 보살 중에서도 그 중심에 관자재보살이 위치하며⁶³⁾ 불교문학과 불교미술에 주요 인물로 등장하게 된다.

중국에서 인도로 불교를 알기 위해 유학을 떠난 많은 입축구법승 중 다수가 도중

62) 서영애 《불교문학의 이해》(서울, 불교시대사, 2002), 13쪽.

63) 강희정 앞의 책, 26-27쪽.

에 운명을 달리 했을 만큼 어렵고 힘든 여행길이었지만 목숨을 구한 승려들은 법현을 필두로 여행기록을 남겼다. 신라 승려 혜초도 그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大唐西域記》가 그들 기록 중에서 더욱 빛나는 것은 매우 세세하고 구체적인 기록과 더불어 문학적 질은 고사들의 寶庫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大唐西域記》에 묘사된 관자재보살상 고사는 모두 13조인데 그 소재국은 고대 인도의 8개국으로 나뉜다. 그 중 3개국은 고대 인도의 북서부 지역에 위치한 간다라 지방 근처에 위치하고 현재의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및 인도 서북 산악지대의 카슈미르주에 해당된다. 또 다른 3개국은 고대 인도의 북동부 지역에 위치하는데 현 인도의 비하르주와 우타프라데쉬주 및 방글라데시에 해당된다. 그리고 나머지 2개국은 각각 인도의 중서부인 아잔타석굴 근처와 남인도 남동부의 크리슈나강 하구 연안에 위치한다. 《大唐西域記》內 관자재보살상 고사의 이러한 지역별 분포는 파미르 고원과 카라코람 산맥 근처의 북부와 히말라야 산맥 근처의 북부에서 많이 流轉되었고 아라비아해 근방의 중서부와 벵갈만 연안의 남동부에서 각각 1조씩 유전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인도의 지형으로 볼 때 인도의 중앙부에서는 관자재보살상 고사가 전혀 유전되지 않았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大唐西域記》 내에서 관자재보살상 조각의 형태를 볼 때 형태를 입상의 형태라고 밝힌 고사가 4조이고 나머지는 형태에 대한 서술은 하지 않았다. 그리고 관자재보살 조각상이 소재한 위치는 사원이라고 밝힌 고사가 7조로 가장 많고 큰 산마루, 잔지즈강 기슭, 보리수 담장 안 금강좌 옆, 중각 안 감실, 위치를 밝히지 않은 고사가 각각 1조씩으로 서술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大唐西域記》內 관자재보살상 고사를 그 모티프에 따라 신묘한 행적을 강조한 유형, 단식기도를 강조한 유형, 미륵보살과 관련된 유형으로 나누어 보았다. 신묘한 행적을 강조한 유형에서 관자재보살은 현세이익적인 성격과 민간 신앙의 신격을 띠며 당시 그 지역의 전설 및 민간 신앙과 연관되어 서술되어 있음이 드러났고 또한 관자재보살상 고사가 소재한 해당 사원의 홍보와 불교의 포교를 위한 의도로 쓰인 것을 추측해 볼 수 있었다. 단식기도를 강조한 유형은 관자재보살이라는 초월적 존재와의 遭遇를 위해 배고픔을 참는 수행이 전제되고 배고픔이라는 고통을 가함으로써 참회를 대신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미륵보살과 관련된 유형은 미륵보살이 관자재보살과 함께 협시의 존재로서 등장하며 상생미륵보살과 하생

미륵보살 중에서 하생미륵보살 사상을 선호하고 있는 점이 드러난다. 이는 한국의 삼국시대에서 선호한 하생미륵보살 사상과도 부합된다.

필자는 상술했듯이 불교문학의 寶庫이자 고대 중국과 인도 간 문화 교류의 기록이 대량으로 기재된 《大唐西域記》에 대한 연구를 계속해왔는데 본고에서 미진한 부분은 후속 연구를 기약하기로 한다.

【參考文獻】

- 章巽 校注《大唐西域記》上海, 上海人民出版社, 1977.
 季羨林 校注《大唐西域記校注》北京, 中華書局, 2008.
 권덕주 역《대당서역기》서울, 우리출판사, 1994.
 김규현 역《대당서역기》서울, 글로벌컨텐츠, 2013.
 이미령 외 역주《大唐西域記》外 서울, 동국대부설 동국역경원, 1998.
 水谷眞成 譯註《大唐西域記》東京, 平凡社, 2000.
 慧立 趙曉鶯 譯《大慈恩寺三藏法師傳》北京, 華文出版社, 2011.
 이미령 외 역주《大慈恩寺三藏法師傳》한글대장경 서울, 동국대부설 동국역경원, 1998.
 광덕《반야심경강의》서울, 불광출판부, 2002.
 太田久紀, 정병조 역《불교의 심층심리》서울, 현음사, 1987.
 보경《한권으로 읽는 법화경》서울, 민족사, 2011.
 니니안 스마트, 윤원철 역《세계의 종교》서울, 예경출판사, 2004.
 히라카와 아키라, 이호근 역《인도불교의 역사》서울, 민족사, 2004.
 季羨林《佛教與中印文化交流》南昌, 江西人民出版社, 1993.
 나라 야스아키, 정호영 역《인도불교》서울, 민족사, 1994.
 다케무라 마키오, 정승석 역《유식의 구조》서울, 민족사, 2006.
 方立天, 유영희 역《불교철학개론》서울, 민족사, 2006.
 서영애《불교문학의 이해》서울, 불교시대사, 2002.
 王樹英《中印文化交流與比較》北京, 中國華僑出版社, 1994.
 朱俊《玄奘西遊記》北京, 中華書局, 2007.
 강희정《중국 관음보살상 연구》서울, 일지사, 2005.
 酒井忠夫 외, 최준식 역《도교란 무엇인가》서울, 민족사, 1991.
 히로 사치야, 이미영 역《기적의 관음경》서울, 대숲바람출판사, 2009.

- 최완수 《한국불상의 원류를 찾아서(2) - 미륵 하생과 아미타 출현》 서울, 대원사, 2007.
- 김현준 《관음신앙·관음기도법》 서울, 효림출판사, 2013.
- 하진희 《아잔타 미술로 떠나는 불교여행》 서울, 인문산책, 2009.
- 카트린 궤게 알더, 이문기 역 《민담》 서울, 유로, 2009.
- 김용석 《서사철학》 서울, 휴머니스트, 2009.
- 吳亨根 〈玄奘法師의譯經與佛教的中興〉: 《玄奘研究文集》 鄭州, 中州古籍出版社, 1995.
- 薛克翹 〈西域記與西遊記〉: 《玄奘研究文集》 鄭州, 中州古籍出版社, 1995.
- 李容宰, 〈대당서역기와 왕오천축국전의 문학적 비교 연구〉: 《중국어문학논집》 제56호, 중국어문학연구회, 2009.
- 김태관, 〈현장스님의 번역이론의 연구〉: 《중국어문학논집》 제33호, 중국어문학연구회, 2005.
- 송윤미 〈동서 문화 교류에 의해 탄생된 인도 불상 고사 고찰 - 《大唐西域記》을 통해서〉: 《동서비교문학저널》 30, 2014.
- 송윤미 〈《大唐西域記》의 스무빠 고사 고찰〉: 《동서비교문학저널》 29, 2013.
- 송윤미 〈《大唐西域記》에 묘사된 윤회와 업 사상-자따까(본생담)를 중심으로 (I)〉: 《동서비교문학저널》 27, 2012.
- 송윤미 〈《大唐西域記》 영험 고사 고찰 - 조각상을 중심으로〉: 한국동서비교문학회 봄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4.
- 네이버 두산백과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79697&cid=40942&categoryId=32763>
- 네이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079697&cid=40942&categoryId=32763>
- 다음 브리태니커백과사전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do?docid=b04d2065a>
- 다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19909
- 다음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ndex?contents_id=E0023380
- 다음 고려대장경전 불교용어사전
<http://kb.sutra.re.kr/ritk/service/diction/dicView.do?dicId=9786>

다음 고려대장경전 불교용어사전

<http://kb.sutra.re.kr/ritk/service/diction/dicView.do?dicId=8929>

다음 브리태니커 사전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do?docid=b25h0964a>

【英文提要】

After coming back to China from India, Xuan Zang insisted through *Da-Tang-Xi-Yu-Ji* that Avalokiteśvara was mistranslated and the proper translation of it is Avalokiteśvara. I have conducting a series of studies delving into *Da-Tang-Xi-Yu-Ji* so I have reached the conclusion that the book has more stories on the statue, one of the Buddhist artifacts than other writing of pilgrimages to India to take the Buddha-dharma.

In this paper, I try to divide stories on the Avalokiteśvara Statue in *Da-Tang-Xi-Yu-Ji* into the three motifs by their details — the one mainly dealing with and stressing marvelous works, fasting prayer and Maitreya respectively. I can confirm that Avalokiteśvara had the characteristic of advantage to this life and fork belief and was described as a certain thing with the local legends and fork beliefs at that time in the type stressing marvelous works. Therefore, we can guess stories on the Avalokiteśvara Statue was intended to use as the material for the promotion of a temple which preserves them and the Buddhism propagation. The type stressing fasting prayer take up the position that premises ascetic practices tolerating pain from hunger and substitutes repentance by inflicting pain from hunger to encounter with the transcendent being called Avalokiteśvara.

Finally, the type stressing Maitreya describes Maitreya as the

attendant Bodhisattvas Statue with Avalokiteśvara in the type stressing Maitreya and shows the preference for faith in being born and finding salvation when Maitreya comes as the next Buddha over faith in being born in Tusita where Maitreya is. This coincides with the fact that faith in being born and finding salvation when Maitreya comes as the next Buddha prevailed in the Three Kingdoms of Korea.

【主題語】

Da-Tang-Xu-Yu-Ji, Avalokiteśvara, marvelous works, fasting prayer, Maitreya

투고일: 2014. 10. 15 / 심사일: 2014. 10. 20~11. 5 / 게재확정일: 2014. 11. 10